

‘잔인한 4월’ 가고 ‘변화의 5월’ 온다

T 타이거즈 전망대

이범호·안치홍 복귀 등 엔트리 대거 교체 하위권 롯데·NC 상대 분위기 반전 노력

‘잔인한 4월’을 보낸 KIA 타이거즈가 ‘변화의 5월’을 예고했다.

KIA 타이거즈에는 쑥스러운 한 달이었다. ‘다펜딩 챔피언’으로 주목을 받으며 새 시즌을 열었지만 민망한 패배가 차곡차곡 쌓였다.

특히 한화 이글스, kt 위즈를 상대했던 지난주는 시즌 초반에 드러난 KIA의 약점이 총망라된 ‘4월 요약본’이었다.

중잡을 수 없는 타선 탓에 에이스 양현종은 완봉승이 아닌 완투패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고, 마무리 김세현은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00을 찍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빠진 불펜의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와 주루에서도 집중력 잃은 장면들이 노출됐고, 벤치는 이범호·안치홍의 부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실패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4월 한 달 승률은 0.428(9승 12패). 뒷맛이 개운치 못한 패배들이 많았다. 5월을 여는 KIA는 ‘변화’를 위기 탈출

을 위한 키포인트로 삼았다. KIA는 지난 30일 KBO에 내야수 김지성의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김지성은 지난 27일 올 시즌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됐지만 침체된 팀 분위기에 힘을 보태는데 실패, 2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리고 KIA 코칭스태프는 김지성의 웨이버공시를 결정하면서 선수단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1일부터 시작해서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를 갖는 KIA는 ‘변화’를 위해 ‘엔트리 카드’도 사용했다.

충격적인 루징 시리즈가 남아있던 수원 원정에서 4명의 선수는 부산이 아닌 광주로 향했다.

두수 임기준과 박정수, 내야수 홍재호, 외야수 이영욱이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1군 선수단과 다른 버스를 탔다. 대신 이천에서 열린 두산과의 퓨처스 경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끝낸 이범호와 안치홍은 수원으로 건너와 선수단과 부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남은 두 자리는 새 얼굴로 채울 예정이다.

2018 2차 1라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좌완 김유신과 ‘에비역’ 황인준이 마운드의 새 전력으로 투입된다.

‘고졸 루키’ 김유신은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역할을 맡아 프로 적응을 끝냈다. 김유신은 안정된 제구와 성실함으로 1군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황인준은 목직한 구위로 어필을 하게 된다. 힘 있는 공과 커터성 슬라이더를 앞세운 그는 입단 4년 만에 처음 1군 무대를 밟게 됐다. 황인준은 아버지 뒤를 이은 ‘야구인 2세’다. 한화·LG 내야수로 활약했던 황대연이 그의 아버지다.

중중 롯데를 상대로 원정 승률 높이기엔 나서는 KIA(원정 전적 4승 10패·승률 0.286)는 주말에는 NC 다이노스와 올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위기의 팀’들의 대결이다. 롯데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화려한 투자를 하면서 주

■ 2018 KBO리그 팀순위 (30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30	21	0	9	0.700	0.0
2	SK	30	20	0	10	0.667	1.0
3	LG	31	18	0	13	0.581	3.5
4	KT	31	15	0	16	0.484	6.5
5	한화	29	14	0	15	0.483	6.5
6	KIA	28	13	0	15	0.464	7.0
7	넥센	32	14	0	18	0.438	8.0
8	NC	31	13	0	18	0.419	8.5
9	롯데	29	12	0	17	0.414	8.5
10	삼성	31	11	0	20	0.355	10.5

목을 끝냈지만 시즌 초반 최하위 자리를 지켰다. 최근 타선이 움직이면서 반전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12승 17패(승률 0.414)의 전적으로 9위에 머물고 있다. 초반 두산과 선두 싸움을 했던 NC도 ‘빛속 혈투’ 후 유증에 시달리면서 8위(13승 18패)에서 전전공공하고 있다.

한편 KIA는 핵터를 앞세워 ‘변화의 5월’을 연다. 핵터는 1일 롯데 듀브론트를 상대로 시즌 3승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어린이날·어버이날 ‘패밀리 워크’

4~6일 NC전·8~10일 두산전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팬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패밀리 워크(4-6일·NC전, 8-10일·두산전)’를 운영한다.

KIA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타이거즈 사생대회’와 ‘챔피언스필드 베이비 레이스’, 사인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

옛 무등경기장 성화대 앞에서 진행되는 사생대회는 사전에 접수한 어린이 회원 50명이 참가한다.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수훈선수와 기념촬영, 시구 기회 등이 주어진다.

또한 생후 18개월 미만 유아(부모 동반)들의 달리기 시합인 ‘베이비 레이스’가 펼쳐지고, KIA 응원단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복장으로 나서 팬들과 기념촬영 시간을 갖는다.

오후 12시부터 진행되는 사인회에는 김기태 감독과 주장 김주찬이 참여한다. 사인회에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권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인내소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배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날 시구는 2018시즌 어린이회원 1호 가입자인 김시을 군이 한다. 애니메이션 런닝맨 캐릭터인 ‘리우’와 ‘미오’가 각각 시구 도우미와 시타자로 함께 한다. KIA는 경기가 끝난 뒤에는 그라운드를 개방해 어린이들이 그라운드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할 예정이다.

8일 어버이날에는 선수단이 카네이션 패지와 카네이션 문양 배번이 수놓여져 있는 ‘카네이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또한 입장하는 팬 가운데 가족들에게 카네이션 1000송이를 선착순 증정한다.

부모님을 위한 ‘아빠의 칭찬 사인회’도 열린다. 부모님 세대가 젊은 시절 야구장에서 목소리 높여 응원했던 ‘타이거즈 레전드’들이 사인회에 나서 추억을 되살린다.

‘아빠의 칭찬 사인회’를 통해 ‘싸움닭’, ‘팔색조’로 명성을 떨친 조계현 단장과 한국시리즈 최다승(7승) 기록을 보유한 김정수 투수코치, ‘안방마님’ 정희열 수석코치가 팬들을 만난다. 사인회 참여 우선권은 중장년층과 가족 관람객에게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개월만의 우승 그녀는 울었KO!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호주교포 이민지가 연장전 끝에 따돌리고 투어 통산 15승째를 거둔 리디아 고가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연장서 이민지 누르고 우승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1개월 만에 우승 감격을 누렸다.

리디아 고는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6507야드)에서 열린 메디힐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호주교포 이민지를 연장전 끝에 따돌리고 투어 통산 15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4000만원)다.

연장 첫 번째 홀인 518야드 18번 홀(파5)에서 이글로 승부를 결정지은 리디아 고는 2016년 7월 마라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에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3라운드까지 2위 제시카 코르다(미국)에게 1타 앞선 단독 선두였던 리디아 고는 6번 홀까지 보기만 3개를 적어내며 선두 자리를 내줬다. 7번 홀(파4) 버디로 반격을 시작한 리디아 고는 10번 홀(파4)에서 다시 한 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하지만 3라운드까지 3타 차 3위였던 이민지의 기세가 매서웠다. 이민지는 13번 홀(파4)까지 2타를 줄이며 단숨에 선두 경쟁에 합류했다. 반면 코르다는 짧은 퍼트

를 연달아 놓치며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먼저 행운이 찾아온 쪽은 리디아 고였다. 리디아 고는 13번 홀(파4)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칩샷이 그대로 버디로 연결됐다.

15번 홀(파5)에서도 1타를 더 줄인 리디아 고는 단독 선두로 뒤흔쳐나갔다.

이번에는 이민지가 행운의 버디를 잡았다. 17번 홀(파3) 티샷이 벙커로 향했으나 벙커샷이 홀 안으로 향하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8번 홀(파5)에서 이민지가 먼저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경기를 끝냈고, 마지막 조의 리디아 고 역시 버디로 맞받아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했다.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는 리디아 고가 두 번째 샷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리디아 고는 두 번째 샷을 홀 1m 거리에 가져다 놓으며 이민지를 압박했다. 이민지가 먼저 버디로 홀 아웃 했고, 리디아 고는 이글 퍼트에 성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교포 선수들끼리 연장전을 치른 이번 대회에서 한국 국적의 선수들은 10위 내에 아무도 진입하지 못했다. 신지은, 이미향, 유소연이 나란히 3언더

파 285타로 공동 18위에 올랐다. 세계 1위 박인비는 이번과 288타로 공동 31위, 세계 2위 평산산(중국)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에 올라 다음 주 세계 랭킹 변화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세계랭킹 349위

575계단 상승

양용은(46)이 8년 만의 우승 ‘한 방’으로 세계랭킹을 600계단 가까이 끌어올렸다.

양용은은 지난 30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349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925위에서 무려 576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300위권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 1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공동 27위를 차지한 이후 15개월 만이다.

양용은은 지난 2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골프클럽에서 끝난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더 크라운스(총상금 1억2000만엔)에서 2010년 10월 코요롱 한국오픈 이후 7년 6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설욕의 날

류현진 내달 3일

애리조나전 선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최근 4경기 평균자책점은 0.73이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22로 메이저리그 전체 12위다. 단 한 경기, 4월 3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3.2이닝 5피안타 3실점)만 지워내면 류현진의 2018시즌은 완벽하다.

류현진이 한 달 만에 설욕 기회를 잡았다.

류현진은 5월 3일 오전 10시 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채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에게는 악몽의 장소이자 상대다. 그는 4월 3일 올 시즌 정규시즌에 처음 등판해 조기강판했다. ‘천적’ 폴 골드슈미트와 A.J. 폴록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케일 마르테에게는 2안타를 허용했다. 그리고 불빛을 5개나 내줬다.

이날 부진으로 류현진은 ‘5선발 자리도 위협하다’는 현지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사이, 류현진은 ‘괴물 투수’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오픈

나달 11번째 우승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일 대회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나달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251만9000유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츠(63위·그리스)를 2-0(6-2 6-1)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나달은 이 대회에서만 11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50만1700유로(약 6억5000만원)다.

ATP 투어에서 단일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역시 나달이 지난주 세운 롤렉스 마스터스 11번 우승이다.

나달은 이 대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연패를 달성했고 2011년부터 2013년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 3연패를 이뤄냈다.

나달은 클레이코트 대회 최근 19연승, 46세트 연속 승리 행진도 이어갔다. 클레이코트 통산 401승째를 따낸 나달은 또 투어 단식 우승 횟수를 77회로 늘렸다. /연합뉴스

최근 LPGA 한국(계) 우승자

*우승날짜 한국시간 기준

연도	이름	대회명	승률
2017년	장하나	호주여자오픈 (2.19)	
	양희영	혼다 타이랜드 (2.26)	
	박인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5)	
	이미림	KIA 클래식 (3.27)	
	유소연	ANA 인스퍼레이션 (4.3) 월마트 챔피언십 (6.26)	
	노무라 하루	텍사스 슈타트 (5.1)	
	김세영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5.8)	
	김인경 (3승)	슬라이트클래식 (6.5) 마라톤 클래식 (7.24) 브리타시오픈 (8.7)	
	대니엘강	KPMG 여자PGA 챔피언십 (7.3)	
	박성현 (2승)	US 여자오픈 (7.17)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8.28)	
2018년	고진영	호주여자오픈 (2.18)	
	미셸 위	HSBC 월드 챔피언십 (3.4)	
	박인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챔피언십 (3.19)	
지은희	KIA 클래식 (3.26)		
리디아고	메디힐 챔피언십 (4.30)		

